

2015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시

<수입 내역>

후원금 입금 현황			
수입총액	30,778,039	전월이월금	7,535,529
지 로	3,359,170	우리은행	8,967,308
국민은행	5,030,009	하나은행	1,156,002
조흥은행	175,002	신한은행	1,460,003
외환은행	560,001	제일은행	225,007
농 협	1,440,000	기업은행	290,008
우 체 국	80,000	지정기탁	470,000
		교구보조	-

<지출 현황>

후원금 지출 현황			
항 목	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	세부내역	
인건비	7,650,000	보모(야간)3명, 주방1명의인건비, 세무사수임료	
주·부식비	3,045,170	주·부식비	
비품, 시설, 영선비	163,000	비품, 시설, 영선비	
활동비, 교통비	91,000	교통비, 봉사자활동비 및 잡비	
의료비	58,130	약구입, 예방접종, 외래 진료비	
소모품비(생필품)	2,253,700	생활용품, 유아용품, 세제, 쓰레기봉투 등	
수도광열비	915,900	통신, 전기, 가스, 수도, 케이블, 전화비	
지원금	2,983,500	심리치료, 문화체험 등 보육지원, 중병 치료 지원금	
교육비	214,600	문구류, 책 등 유아교육자료, 한글반운영비	
행사비	-	행사, 문화체험비	
노동사목위원회	7,380,000	장기수선종당금, 지정기탁(산재, 진폐환우)	
후원회관리	1,481,000	소식지, 봉투, 우편비, 후원프로그램관리비	
지출총액	26,236,000	잔액(이월금)	4,542,039

<쉼터 이용현황>

구 분	이월자	입소자	퇴소자	현재
베들레헴어린이집	30	2	2	30
베다니아의 집	6	2	3	5
벗들의 집	7	5	5	7
사랑의 집	11	3	2	12
마고네공부방	8	0	0	8



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영화 '베테랑'을 얼마 전에 중
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. 영화 중간에 주
인공 형사가 악당 재벌3세에게 "죄는 짓지 말고 삼시다."
라고 주의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. 선과 악의 갈등이 시
작되는 이 장면에서 정의파 형사가 악당 재벌에게 훈계
조로 하는 이 "죄는 짓지 말고 살라."는 말은 사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통
쾌한 말이었는데, 왠지 모르게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.
그 이유는 실제 우리 사회의 온갖 타락들, 특히 매일같이 TV 뉴스를 장식
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온갖 비리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
다. 실제 현실에 난무하는 사회 최고위층들의 온갖 죄들이 오히려 영화의
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, 한편으론 이런 사
회의 어른으로서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.

얼마 전, 여러 신부님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, 한 신부님
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

"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잊어버리면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
있는데, 그게 뭔지 알아? 그건 바로 '염치'야.

청렴할 '렴', 부끄러워할 '치',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
마음인 '염치'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거 같아. 뉴
스나 신문을 보면 염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? 염치가 있다면 저런

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, 사회가 '염치'를 잃어가니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
고도 점점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 같다..."

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. 특히 사회적 책임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더
염치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영향이 큰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염치
없이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을 우리는 '파렴치'하다고 하
는데, 이렇게 파렴치한 사회 분위기를 가장 많이 주도하는 것이 안타깝게
도 정치인들인 것입니다.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자신은 안 그랬다고 발뺌하
다가,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"그때는 그런 사실을 모르
고 했지만, 그럴 의도는 없었다."라는 말장난 같은 변명들로 죄값을 피하
려는 염치없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고, 또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욕을 먹
으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똑같은 정치인들의 모습 또한 자주 보게 됩
니다.

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던 정치인들이 그러한 책
임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일방적으로 강행시키고 있는
국가적 사안이나 정책들도 우리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. 강정 해군기지
건설 문제,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, 세월호 문제 등과 같이 말입니다. 정
치인들 모두, 자신들이 그 자리에 누구 때문에 있는지 자기 본분을 잊지
않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그보다 먼저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부끄러
워할 줄 아는, 염치를 되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시다.

아울러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께 대한 '염치'와 이웃들을 향한 '염치'를
잘 지키며,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'함께 사는
사회'가 되는데 계속 일조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.

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**장경민 시메온 신부**

공지사항

1. 후원미사 안내

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.

10월 후원미사는 19일, 11월 후원미사는 16일, 12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.

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(문의: 02-924-9970~1).

2. 이주노동자 소식

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지난
6월 25일에 나왔습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·경기·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
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이주노동자
소송을 낸 지 10년,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. 이에 따라 앞으
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,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대법
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불법
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또 근로자는 자
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
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
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

대법원 판결 후 이주노조는 설립 신고증을 서울노동청에 냈지만, 노동청은 "규약에 정치적인 목적이
있다"며 다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이주노조는 규
약에 담긴 "연수제도 철폐, 고용허가제 반대, 단속
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,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
취" 등 내용을 "이주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, 노동조
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" 등으로 완화해 다시
제출하여 대법원 판결 이후 거의 두 달 만인 8월 20
일에 필증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.



3.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



서울성곽나들이



음악수업



생일잔치